



시범경기 열기, 프로야구 관중몰이 대박 예상

27일 KIA와 한화의 시범경기가 열린 가운데 가족단위 관람객 등 5300여명이 무등경기장을 찾아 3월의 마지막 휴일을 즐겼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동섭, 홍명보호 해결사 됐다

투톱 활약 중국전 결승골... 1대0 제압  
신안 출신 김귀현 테크닉 발휘 합격점



광주 FC의 공격수 김동섭(사진)이 '홍명보호'의 해결사가 됐다. 홍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 오후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전반 12분 터진 스트라이커 김동섭의 골로 중국을 1-0으로 눌렀다.

오는 6월부터 2012 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을 치러야 하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중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졸군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상대편 골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데는 실패, 문전에서의 마무리 플레이 등이 보완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키 플레이어인 미드필더 구자철(볼프스부르크·독일)을 비롯해 A대표팀에 차출됐던 김보경(세레소 오사카·일본)과 지동원(전남) 등 핵심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한국은 전반에 김동섭과 이용재(낭트·프랑스)를 세운 4-4-2 포메이션으로 중국에 맞섰다.

좌·우 미드필더로는 이승렬(FC서울)과 최정환(오이타·일본), 중앙 미드필더로는 김귀현(벨레스 사르스필드·아르헨티나)과 문기환(FC서울)이 나서 호흡을 맞췄다.

홍명보호에 첫 승선한 신안 입자도 출신의 김귀현은 초반부터 한국의 미드필드 지역에서 안정적인 움직임 보이며 테크니적인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전반 12분 김동섭이 0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김귀현이 오른쪽 측면에서 이용재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며 정동호의 크로스를 이끌어 냈고, 김동섭이 골문으로 달려들며 상대 골키퍼보다 먼저 오른발을 때려서 선제 골을 뽑았다.

한국은 이후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지만, 전반 25분 골 지역 왼쪽에서 이용재의 패스를 받은 최정환이 날린 왼발슛이 골키퍼에게 걸려 더 달아나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다. 후반 10분에는 정동호가 페널티지역 내 오른쪽을 돌파하다 수비수 라오웨이후이의 반칙을 얻어냈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이 아닌 프리킥을 선언했고, 결국 이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홍 감독은 후반 23분 투톱 김동섭과 이용재를 빼고, 석현준(아약스·네덜란드)과 박희성(고려대)을 투입해 전방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이어 후반 27분에는 최정환 대신 김지웅(전북)을 내보내 등 선수 테스트 작업을 이어갔다. 후반 34분에는 이승렬도 불러내고 김경중(고려대)을 내보내는 등 이날 허락된 6장의 교체카드 중 5장을 활용했다.

한국은 이후에도 더욱 거세게 중국을 몰아붙였지만, 확실하게 공격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결국 한 골 차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992년 1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중국 올림픽대표팀과 처음 대결해 3-1로 이긴 뒤 역대 전적 8승1무로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연습뉴스



## KIA 마운드 굿, 방망이만 터지면...

시범경기 6승6패 마감... 개막전 엔트리 30일 확정

KIA 김상현이 5000여 환 관중 앞에서 시범경기 마지막 승리를 장식했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10회말 승부차기에서 김상현의 끝내기 안타로 1-0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KIA는 이번 시범경기 전적 6승6패를 기록했다.

시범경기내내 이어진 KIA의 '투고타자' 양상은 최종전에서도 계속됐다.

트레비스-홍건희-박경태-신용운-손영민으로 이어진 마운드가 한화 타자들에게 단 2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완벽 봉쇄에 나섰다. KIA 타자들은 산발 4안타로 9회까지 점수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KIA는 이번 시범경기에서 세 번째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10회초 KIA 공략에 나선 한화가 번트작전 실패와 함께 점수를 뽑는데 실패했다. KIA는 10회말 이용규·김선빈을 투상에 내보내 공격에 들어갔다.

이범호가 외야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최희섭의 볼넷으로 1사 만루. 김상현이 우전 적시타로 경기를 1-0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마운드에서는 시범경기 두 번째 출격에 나선 신임 용병 트레비스가 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위력을 발휘했다.

트레비스는 최고 146km의 직구를 앞세워 1·2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았다. 커브·슬라이더·체인지업·커터 등 다양한 공

을 구사한 트레비스는 3회부터는 삼진 퍼레이드도 나왔다. 타자들 몸쪽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제구로 한화 타자들을 돌려세우며 모두 7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보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구위와 컨트롤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트레비스는 "컨트롤과 스피드 등을 시험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편하게 피칭을 했는데 앞선 경기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아졌다. 컨디션도 90%이상 올라온 것 같다"고 시즌을 앞둔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28일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29일 오후 6시 무등야구장에서 야간 자체 경기를 갖고 시즌 돌입을 위한 체비에 나선다. 30일 오후 1시에는 엔트리 최종 확정을 위한 마지막 자체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감 잡았어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주 포 추신수(29)가 시범경기에서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 1회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2점포를 터뜨렸다.

추신수는 이날 1회말 1사 1루의 첫 타석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오른손 투수 라이언 보겔송으로부터 우월 투런포를 빼앗았다.

지난 24일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동점

적시타를 때리는 등 2타점을 올렸던 추신수는 이날 타점 2개를 보태 시범경기에서 14타점을 수확했다.

3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섰고 5회 1사 2루에서는 스트라이크 볼넷을 얻어 1루를 밟았으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에 이르지 못했다.

6회초 수비부터 엘리 던컨으로 교체된 추신수는 2타수1안타로 시범경기 타율 0.294(51타수15안타)를 기록 중이다. 추신수의 선제 홈런으로 앞서갔던 클리블랜드는 5-8로 역전패했다.

한편 추신수가 불우 아동을 돕고자 자선

시범경기서 첫 홈런포 폭발  
아동 돕기 자선재단도 설립

재단을 설립했다.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킷 보라스는 27일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미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추신수가 재미동포를 상대로 영업하는 LA 한미은행과 손을 잡고 자선 재단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추신수는 올해 홈런과 도루를 1개씩 올릴 때마다 각각 1000달러를 적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는 시즌 후 자신이 홈런과 도루로 적립한 금액에 한미은행에서 낸 성금을 합쳐 한국과 미국의 유소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연습뉴스

그 동안 TV에서만 봐 왔던 『전주' 흥'콩나물국밥』

#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



2011년, 가장 주목할 국밥프랜차이즈 **흥대옥**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

광주 상무점 [센트럴파크호텔 옆] 062-383-1174  
광주 첨단점 [고려조 삼계탕 옆] 062-971-5844  
순천법조타운점 [순천법조타운 옆] 061-726-1009  
광주 수완점 오픈준비중 (4월 말 오픈)